'명가재건' 노리는 삼성, 단독 선두 달린다…20승 선착 도전

지난 시즌 8위서 올해 팀 평균자책점 1위 '탄탄'
주중 부산서 SSG vs 롯데 라이벌 대전도 관심
추신수, 고향서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와 맞대결

'명가 재건'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20승 선착'을 정조준한다.

삼성은 10일까지 19승(12패)을 거두며 승률 0.613을 올리고 있다. 단독 선두를 달리며 '20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승 선점'은 시즌 전체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까지 20승 선점 팀의 정규시즌 우승 확률은 65.6%(32차례 중 21차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승 고지를 먼저 밟고도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없었다.

최근 5년 연속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삼성에게 20승 선착은 남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시즌을 달성하며 '왕조'를 이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2015년에도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부터 하위권을 전전한 삼성은 지난 시즌에도 8위에 그쳤다.

올해는 다르다. 팀 평균자책점 1위(3.65)로 탄탄한 마운드와 함께 팀 타율 4위(0.278), 팀 홈런 3위(32개)의 방망이가 조화를 이루면서 초반 선두 싸움을 이끌고 있다.

삼성은 11~13일 KT 위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14일부터는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소화한다.

두 팀 모두 상위권에 올라있는 팀이라 이번 맞대결이 더 중요하다. 2위 LG(17승13패), 공동 3위 KT·두산 베어스·SSG 랜더스(이상 16승14패)는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

주중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SSG와 롯데 자이언츠가 '라이벌 대전'을 펼친다.

SK 와이번스를 인수, 올해 처음 KBO리그에 뛰어든 SSG의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개막전부터 '유통 라이벌' 롯데를 겨냥한 도발을 했다.

롯데 구단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경기를 보기위해 현장을 찾자 정 부회장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야구를 좋아했다면 지금까지 야구장에 그렇게 오지 않을 수는 없다. 내가 도발하니까 그제야 야구장에 온 것"이라고 신 회장을 저격한 정 부회장은 "내가 도발하자 롯데가 불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불쾌할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롯데를 계속 불쾌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야구를 하게 만들겠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 회장의 도발 후 다시 만나게 된 SSG와 롯데는 물러설 수 없는 3연전을 치르게 된다. 그야말로 '구단주가 지켜보고 있는' 라이벌전이다.

올해 KBO리그에 뛰어든 SSG 추신수는 정규시즌에선 처음으로 '고향' 부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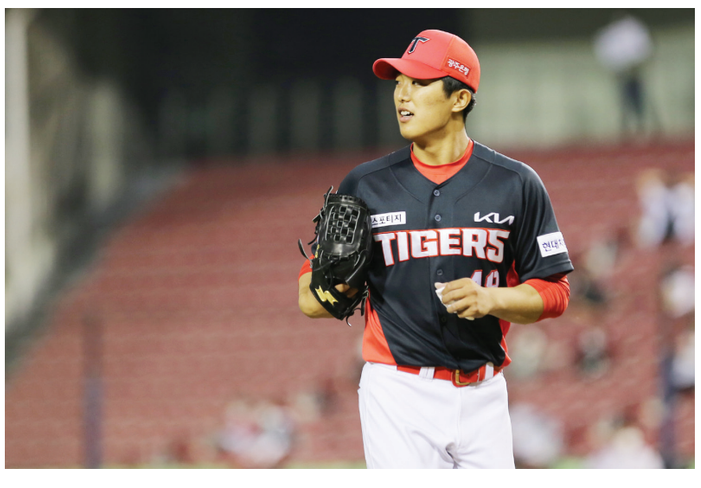
추신수와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롯데)의 맞대결도 관전 포인트다. 이대호는 지난 8일 삼성전에서 경기 막판 엔트리에 들어있는 포수가 모두 교체되자 포수 마스크를 쓰며 승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느덧 4연패에 빠진 KIA 타이거즈(공동 8위)는 LG와 주중 3연전에 이어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KIA는 올해 LG에 2승1패로 앞섰지만 NC에는 3전전패를 당했다.연패를 빨리 끊지 못한다면 초반 순위 싸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뉴시스

첫 부진 KIA 이의리 "직구 커맨드 중요성 배웠다"

67구 가운데 스트라이크 38개 그쳐… "가장 어려운 경기"



"직구 커맨드가 중요하다".

KIA 타이거즈 특급 루키 이의리(19)가 지난 6일 사직 롯데전에서 부진한 투구를 했다. 당연히 맷 윌리엄스 감독의 진단과 분석이 뒤따랐다. 직구 제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의리는 3이닝만 던졌다. 1회는 세 타자를 잡았지만 2회 제구가 흔들리며 무려 5실점했다. 불넷을 3개나 주며 만루에 몰렸다. 중간에 수비수들의 실책도 끼여 있었다.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이의리 답지 않았다. 스트라이크를 넣기가 어려웠다. 67구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38개에 그쳤다.

윌리엄스 감독은 "초반부터 직구 커맨드(제구)가 잡히지 않아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다. 이번 시즌 가장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런 것을 자주 보고 싶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의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경기였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직구 제구가 잡히지 않아 체인지업을 많이 썼다. 체인지업이 맞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모든 투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자 적용되는 것이다. 초반부터 직구 커맨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의리의 직구는 최고 150km까지 나올 정도로 위력적이다. 낮게 낮게 구석 구석 파고든다. 팔스윙이 빠르고 릴리스포인트가 앞에 있어 더욱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제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체인지업도 그 직구 위력이 있어야 통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류현진, 13일 애틀랜타전 선발 등판…시즌 3승 사냥

2년 만에 타석에도 들어서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류현진을 13일 오전8시20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 선발로 예고했다.

현지 기자들도 토론토가 12~14일 진행되는 애틀랜타와 3연전에서 로비 레이, 류현진, 로스 스트리플링을 순서대로 낸다고 전했다.

닷새 휴식을 취한 류현진은 시즌 3승을 노린다.

지난달 2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도중 오른쪽 엉덩이 근육통을 호소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그는 복귀전이었던 지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따냈다.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을 확인한 만큼 부담을 덜고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류현진은 애틀랜타를 상대로 통산 6경기에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2.37로 준수한 성적을 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만나 5이닝 1피안타 3볼넷 8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승리를 따낸 좋은 기억이 있다.

이번 등판에서는 '타자 류현진'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다.

아메리칸리그에 속한 토론토와 달리 내셔널리그 소속의 애틀랜타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어 투수도 타석에 들어선다. 두 팀의 대결은 애틀랜타의 홈경기로 치러져 내셔널리그 규정을 따른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서 마지막으로 배트를 잡은 건 LA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9월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이다. 당시 2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토론토는 9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타격 훈련 중인 류현진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뉴시스

지소연 소속 첼시 위민, 2시즌 연속 英 WSL 우승

선발로 나와 후반 13분 교체
58분 소화하며 팀 우승 일조
2014년 입단 후 4차례 우승

첼시의 지소연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킹스메도우에서 열린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레딩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우승을 확정한 후 태극 문양이 그려진 정강이 보호대를 들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첼시는 레딩에 5-0으로 승리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지소연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 58분을 소화했다.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30) 소속 첼시 위민이 2시즌 연속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우승에 성공했다.

첼시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킹스 메도우에서 치러진 2020~2021 시즌 WSL 22라운드 최종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레딩 위민에 5-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승점 57점(18승3무1패)을 기록한 첼시 위민은 2위 맨체스터 시티 위민(승점 55)을 승점 2점 차로 제치고 리그 챔피언이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된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리그 정상이다. 구단 통산 4번째 리그 우승(2015, 2018, 2020, 2021)이기도 하다.

지소연은 이날 선발로 나와 후반 13분 구로 레이텐과 교체될 때까지 58분을 소화하며 팀 우승에 일조했다.

2014년 첼시 위민 유니폼을 입은 지소연은 팀의 4차례 우승을 모두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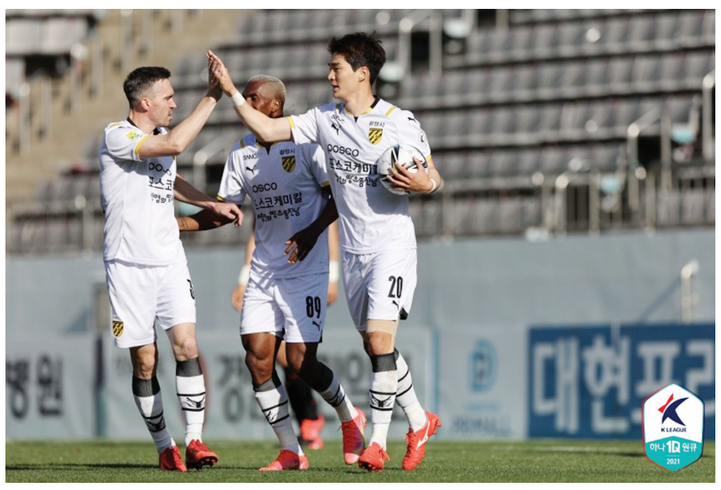
또 위민스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2014~2015, 2017~2018), 리그컵(2019~2020, 2020~2021), 커뮤니티 실드(2020), WSL 스프링시리즈(2017) 등 총 10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앞서 리그컵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제패한 첼시 위민은 시즌 더블에 성공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는 결승에 올랐고, FA컵도 5라운드를 앞둬 쿼드러플(4관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17일 오전 4시 열리고, 에버턴과 FA컵 5라운드는 21일 오전 3시 예정돼 있다.

K리그2 '장순혁 결승골' 전남, 경남 꺾고 2위 도약



프로축구 K리그2(2부) 전남 드래곤즈가 경남FC를 꺾고 2위로 올라섰다.

전남은 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21 11라운드에서 장순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5승(4무2패 승점 19)째를 신고한 전남은 한 경기를 덜 치른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17)을 제치고 2위로 도약했다. 선두 FC안양(승점 20)과의 승점 차이는 1점이다.

전남은 후반 5분 장순혁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 발로텔리의 페널티킥 추가골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곽보미, 교촌 허니 오픈서 생애 첫 우승

곽보미(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총상금 6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곽보미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아일랜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 잡아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친 곽보미는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한 지한솔(25)을 제치고 K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곽보미는 2부 투어에서만 3차례 우승 경험이 있다. 우승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받는다.

곽보미는 "뜻밖의 우승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동안 투어 생활하면서 시드권 걱정에 늘 전전긍긍했었다. 오늘 우승을 통해 몇 년(2개 시즌)은 시드권 걱정을 안해도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 전향 11년 만에 우승한 곽보미는 "꿈만 같았다. 우승 확정이 된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정말 우승인가?', '꿈인가?'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